이의리·최지민·최원준 아시안게임서 金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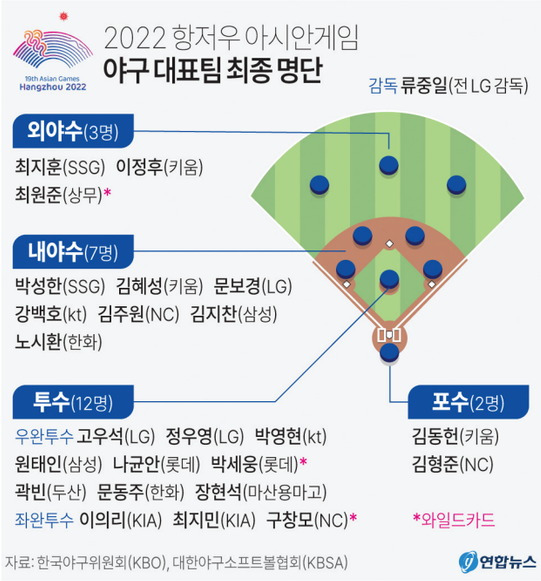
KIA 3명 야구대표팀 선발

KIA 타이거즈의 좌완 이의리·최지민과 상무에서 전역한 외야수 최원준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에 도전한다.

KBO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최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설 야구 국가대표팀 선수 24명과 코칭스태프의 명단을 발표했다.

KBO 전력강화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KBSA에 제출했던 사전등록 명단 선수 198명(KBO 리그 선수 180명·아마추어 선수 18명)을 대상으로 최종 명단 선발을 진행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24명의 선수를 KBSA에 추천했고, KBSA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이 대한체육회에 제출됐다.



KIA에서는 이의리와 최지민 두 좌완 투수와 함께 외야수 최원준이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고졸 3년 차 이의리는 입단 첫해부터 팀의 선발 한 자리를 차지하며 신인왕을 거머쥐는 등 KIA를 대표하는 투수 중 한 명이다.

올 시즌에는 12경기에 나와 55.1이닝을 소화하면서 2.77의 평균자책점으로 6승 3패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0일 두산전에서는 4회 3개의 볼넷을 허용하는 등 제구 난조로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6이닝 3실점, 시즌 두 번째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승리 투수가 됐다.

최지민은 올 시즌 KIA 마운드 '샛별'로 떠오른 고졸 2년 차 선수다.

프로 입단 첫 해였던 지난해에는 6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올 시즌 150㎞의 강속구를 뿌리는 등 스피드 상승 속 안정된 제구를 바탕으로 KIA의 새로운 필승조로 자리했다.

올 시즌에는 24경기서 28.2이닝을 던지면서 1.57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 2패 3홀드 1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다.

'호타준족'의 좌타자 최원준은 11일 상무에서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으로 롯데 우완 박세웅, NC 좌완 구창모와 함께 와일드카드로 대표팀에 선발됐다.

이번 대표팀은 앞으로의 국제대회에서 주축이 될 선수들을 적극 육성한다는 취지로 KBO 리그 선수 중 만 25세 이하 또는 입단 4년차 이하 선수를 대상으로 구성했다.

아마추어에서는 마산용마고 우완 장현석이 이름을 올렸다. 고교생 최초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발이다.

류중일 감독을 보좌할 코칭스태프도 확정됐다.

최일언 투수 코치(전 LG 코치), 김동수 배터리 코치(SBS 스포츠 해설위원), 장종훈 타격 코치(전 한화 코치), 류지현 작전 코치(KBSN 스포츠 해설위원), 이종열 수비 코치(SBS 스포츠 해설위원)와 김현욱 불펜/컨디셔닝 코치(롯데 트레이닝 코치)가 류중일호를 구성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미뤄진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오는 9월 23일 개막해 10월 8일까지 치러진다. 이번 아시안게임 기간에는 KBO리그 중단 없이 정규시즌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의리

최지민

최원준

시비옹테크 프랑스오픈 테니스 여자 단식 우승

결승서 무호바 2-1로 꺾어

이가 시비옹테크(1위·폴란드)가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4960만 유로·약 706억원) 여자 단식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시비옹테크는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대회 14일째 여자 단식 결승에서 카롤리나 무호바(43위·체코)를 2-1(6-2 5-7 6-4)로 물리쳤다.

이로써 시비옹테크는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올해까지 최근 4년 사이에 세 차례나 프랑스오픈 여자 단식을 제패했다.

프랑스오픈 여자 단식 2연패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연속 우승한 쥐스틴 에냉(벨기에) 이후 올해 시비옹테크가 16년 만이다.

지난해 US오픈에서도 우승한 시비옹테크는 개인 통산 네 번째 메이저 대회 단식 타이틀을 획득했다.

우승 상금 230만 유로, 한국 돈으로 31억 9000만원을 받은 시비옹테크는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출산한 2017년 이후 혼전 양상이던 여자 테니스 최강자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시비옹테크는 1세트 상대 첫 서브 게임부터 브레이크하며 3-0으로 앞서 나갔고, 5-2에서도 다시 한번 무호바의 서브 게임을 가져와 44분 만에 1세트를 따냈다.

생애 처음 메이저 대회 결승에 오른 무호바는 1세트에서 실책을 시비옹테크(5개)의 3배에 가까운 14개를 쏟아내며 끌려갔다.

2세트에서는 무호바가 반격에 나섰다.

시비옹테크가 게임 스코어 3-0으로 앞서 나간 것은 1세트와 같았지만, 이번엔 무호바가 내리 3게임을 따내 3-3을 만들었다.

무호바는 아리나 사발렌카(2위·벨라루스)를 상대로 한 4강에서도 3세트 게임스코어 2-5로 끌려가고 매치 포인트까지 내주는 위기를 이겨내 결승에 오른 선수다.

무호바는 게임 스코어 5-4로 앞선 상황에서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키지 못해 5-5 동점을 허용했지만 이후 연달아 2게임을 따내 이번 대회에서 시비옹테크를 상대로 한 세트를 가져온 유일한 선수가 됐다.

/연합뉴스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11일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에서 인터밀란(이탈리아)을 1-0으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맨시티의 첫 '유럽 트레블' 달성에 앞장서고 '득점 2관왕'까지 거머쥔 엘링 홀란이 우승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맨시티, 사상 첫 챔스 우승 '트레블'

EPL 리그·FA컵 이어 3관왕
과르디올라 감독 2차례 트레블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2022-202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우승하며 구단 사상 첫 '유럽 트레블'의 대업을 이뤄냈다.

페프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맨시티는 11일(한국시간)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후반 23분 터진 로드리의 결승골을 앞세워 인터밀란(이탈리아)에 1-0으로 승리, 구단 사상 첫 UCL 우승을 이뤄냈다.

2008년 아랍에미리트(UAE) 자본에 인수된 뒤 강호로 떠오르며 올 시즌까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7차례나 우승했지만 UCL 우승에는 번번이 실패하던 맨시티는 염원하던 우승컵 '빅이어'를 드디어 들어 올렸다.

올 시즌 EPL과 잉글랜드축구협회 FA컵에서 우승한 맨시티는 잉글랜드 팀으로는 1998-1999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에 이어 2번째로 유럽 트레블(3관왕)을 이뤄냈다.

맨시티는 2018-2019시즌 EPL, FA컵, 리그컵에서 우승해 '국내 트레블'은 한 차례 달성한 경험이 있다.

유럽 트레블을 달성한 팀은 바르셀로나(스페인), 바이에른 뮌헨(독일), 셀틱(스코틀랜드), 에인트호번(네덜란드), 맨유(잉글랜드), 인터밀란에 맨시티까지 8개 팀뿐이다.

이 중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은 유럽 트레블을 2차례씩 달성해 올 시즌 맨시티의 유럽 트레블은 역대 10번째 사례다.

2016년 맨시티 지휘봉을 잡은 과르디올라 감독은 7년 만에 고대하던 UCL 우승을 달성했다.

앞서 맨시티를 이끌고 결승에서 1차례, 준결승에서 1차례, 8강에서 3차례 아깝게 탈락했던 'UCL 잔혹사'를 끝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과거 바르셀로나를 이끌고는 2008-2009시즌과 2010-2011시즌 UCL에서 두 차례 우승한 바 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맨시티 유니폼을 입은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은 데뷔 시즌 팀에 빅이어를 선사했다.

EPL에서 무려 36골을 퍼부으며 득점왕을 차지한 홀란은 UCL에서도 12골로 득점왕에 올랐다.

홀란은 공식전 52골로 충격적인 EPL 데뷔 시즌을 마무리했다.

2009-2010시즌 이후 13년만에 UCL 결승 무대에 오른 인터밀란은 4번째 우승을 다음 기회로 미루고 맨시티 첫 우승 드라마의 조연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연합뉴스

광주FC, 마지막 1분 못 버텨 무승부

대전하나시티즌과 1-1

광주FC가 4연승 길목에서 1분을 버티지 못하고 무승부에 만족했다.

광주가 지난 1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승격 동기'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1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반 40분 '살림꾼' 정호연의 시즌 첫골이 나왔지만 후반 43분 대전 김인균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한때 7경기 무승에 빠졌던 광주는 수원FC전 승리 이후 '난적' 포항스틸러스에 이어 수원삼성을 제압하면서 3연승 질주에 성공했다. 그리고 이날 승점 1점차로 7위 광주 앞에 자리한 6위 대전을 상대하러 원정길에 올랐다.

경기 시작부터 선수들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전반 4분 토마스가 이현식의 태클에 넘어졌고 경고 카드가 나왔다.

전반 8분 대전 이진현의 슈팅을 골키퍼 이준이 뛰어올라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겼다.

전반 20분에는 광주가 상대 골키퍼 이창근의 호수비에 울었다.

이민기가 왼발로 때린 공이 벗어났고,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 아사니가 키커로 나서 왼발로 킥을 날렸다. 골대로 향하던 공을 대전 골키퍼 이창근이 막아냈다.

전반 29분에는 토마스의 패스를 받은 아사니가 문전으로 공을 띄웠지만 허율의 머리에 닿지 못했다.

전반 40분 기다렸던 정호연의 골이 나왔다.

광주 진영에서 공을 뺏은 정호연이 그대로 공을 몰고 올라간 뒤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날렸다. 골대 상단 맞은 공이 골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정호연의 시즌 첫 골이 장식됐다.

1-0에서 시작된 후반 초반. 대전의 공세가 만만치 않았다.

후반 5분 레안드로, 주세종, 이진현 슈팅이 연달아 나왔지만 이준이 좋은 수비로 골대를 굳게 지켰다. 후반 7분에는 김인균의 슈팅을 품에 안으면서 대전 공세를 막았다.

이후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됐고 후반 27분 광주 벤치에서 아쉬운 탄성이 나왔다. 이순민이 왼쪽에서 때린 회심의 오른발 슈팅이 이창근에 막혔다.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는 이상기의 헤더가 이어졌지만 골대를 벗어났다. 후반 31분에는 김한길이 헤더를 시도했지만 매서움이 떨어졌다.

후반 40분 광주가 역습 상황을 맞았다. 유강현의 슈팅이 티모 맞고 골대 밖으로 흐르면서 한숨을 올렸다.

1-0에서 약속된 후반 45분이 지났고 4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다.

경기 종료 1분을 앞두고 광주의 골대가 열렸다. 마사가 오른쪽에서 반대 쪽으로 찍어준 공이 김인균에게 연결됐다. 김인균의 왼발이 움직였고, 잠시 후 광주 골망이 흔들렸다.

이후에도 대전은 광주를 압박했다. 유강현의 터닝슈팅을 이준이 저지했고, 마지막 코너킥 상황을 막아내면서 광주는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정효 감독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경기였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젖 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경기를 잘한 것 같다. 상대도 만회골을 넣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다. 경기장에서 양 팀 선수들 모두가 좋은 경기를 보여준 것 같다. 끝까지 잘 싸워준 선수들 모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3일 포항, 7일 수원과의 홈 경기에 이어 10일 대전 원정까지 강행군을 벌인 광주는 2주 간의 A매치 휴식기를 보낸다. 그리고 오는 24일 전북현대와의 홈경기를 통해서 리그 일정을 재개한다.

이정효 감독은 "잘 쉬겠다. 2주 동안 쉬면서 복귀하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이기고 있을 때 추가 득점 등 보완할 부분을 개선 하겠다.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